

6.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2021 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 구술채록				
구술자명	서중석	면담자	차성환		
검독자	이름 : 차성환		직위 및 소속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면담 일시	2021. 10. 13	회차	1	시간	04:37:47
자료번호					
구술 개요	출생과 성장 과정, 서울대 사학과 입학과 3선개헌 반대 투쟁, 3과폐합반대투쟁, 군생활, 10월유신, 10·2시위, 민청학련사건과 재판 과정, 수감 생활과 석방 이후의 삶, 『신동아』 기자로 동아일보 입사, 10·26사건, 5·18항쟁, 한국현대사로 석박사 취득, 『역사비평』 주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성균관대 교수				
주요 색인어	4·19, 5·16, 3선개헌, 10·2시위, 10월 유신, 민청학련, 인혁당 재건위, 『신동아』, 10·26사건, 김재규, 서울의 봄, 5·18항쟁, 6월항쟁, 87년 대선, 김영삼, 김대중				
주요 인물	이철, 유인태, 이현배, 조영래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파일명		
	1. 출생과 성장과정	00:00:01 ~ 00:30:04	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 구술채록_서중석_음성자료 1.mp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8월 25일, 전북 익산군 황하면 봉동리에서 출생 (지금 충남 논산군 연무읍 봉두리) - 아버님은 대구사범학교 1기생이었으나 대구사범대학 독서회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후 농사를 지었음. - 2남 3녀 중 넷째로 실제로 형제는 8명이었으나 위로 세 명은 어릴 적에 사망했음. - 어머니는 온화하신 분이였으며, 부모님들은 중농의 살림으로 자식 4명을 대학까지 보내신 성실한 농사꾼이었음. - 1955년 황하초등학교에 입학, 6학년 때 4·19혁명 발발. - 1961년에 강경중학교 입학. 5·16쿠데타 발발. 전단지들 통해 박정희 사진을 보고 못생겼다고 기억함. 그 당시 중학교 수학선생인 박수길이 학교를 그만두고 논산군에 있는 어느 지역 면장으로 감. 5·16 이후 군인들이 거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음. - 누나의 친구 집에서 강경중학교 다님. 독서를 이 시기에 많이 하여 눈이 나빠지게 됨. - 1964년 서울고등학교에 입학, 이미 서울에서 한전에 취직하게 된 형과 함께 지내게 됨. 				
	2. 서울대 문리대 입학과 다양한 씨클 활동	00:30:05 ~	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7년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 입학. 역사를 좋아하여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음. 중, 고교 과정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다고 느낌. - 에드먼드 윌슨의 책과 루소의 책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음 - 제일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씨클인 후진국문제연구회 가입하고 그 외 『형성』 지, 경제복지회, 쿠사 등에서 활동 - 후진국문제연구회에서 6·8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주도하며 참여함 - 1969년 남세진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농문회를 만들어 문리대 학생운동 세력을 규합함. - 3선개헌 투쟁으로 농문회가 없어지고 1970년에 문우회가 생김. 	01:00:00	리사업 구술채록_서중석_음성자료 1.mp3
<p>3. 3선개헌 반대투쟁, 3과폐합 반대투쟁, 군 입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년 전후하여 민비련사건, 동백림사건, 통혁당사건 등이 발생 -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이 벌어짐. 6월 7일 약 200여 명이 서울법대에서 성토회 시작. 수일 후 서울대 법대, 문리대, 상대가 함께 2박 3일 농성에 들어감. 민주수호서울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김세균이 위원장을 하고 구술자는 외곽에서 조영래, 김지하 등과 연결하여 지원했음. - 문리대 3과(철학과, 미학과, 종교학과)폐합반대투쟁으로 제적됨. - 당시 신세검사 후 6개월 내지 1년 후 영장이 나오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아 시골로 입영통지서가 나옴. 우연히 시골에 갔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이상하게 군대를 가게 됨. 군대에서 민간인통제지역(양구하고 인제 사이에 있는 해안면)에서 파견교사로 나가기도 함. 	01:00:01 ~ 01:27:14	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 구술채록_서중석_음성자료 1.mp3
<p>4. 군대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1군 사령관 한신 장군이 군인들을 민간인 투표장에서 투표하게 하여 원통까지 가서 투표함. 그 당시 군인들 60%가 김대중을 찍었다고 함. - 유신쿠테타가 일어난 것을 군에서 알게 됨. -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으니 군 내부의 반향은 못 느낌. - 1973년 5월에 군대를 제대함. -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함. - 1973년 9월경 복학함. 당시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유신체제 정통성과 일반 국민들을 위무하자는 논리로 학생 처벌을 무효화해서 복학시킴. 학교 서류에는 정학 처리 되어 있어 복학이 가능하였음. 	00:00:01 ~ 00:10:18	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 구술채록_서중석_음성자료 2.mp3
<p>5. 10·2시위와 민청학련사건의 준비과정</p>	00:10:19	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년 10월 2일 시위에 대해 나병식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나 	~	

<p>신중론을 피력하고 시위 날은 사학과 연구실 중 국사학과 연구실에서 지켜보았음. 그런데 이전과 달리 600여 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윤혜영 등 여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띈. 개신교의 KSCF가 적극 참여하였고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초에는 시험 거부와 구속학생 석방 요구함. 학생들이 유신 체제에 대해 가지는 반감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됨. - 12월 중순에 유인태, 이철을 한자리에서 만나 여러 대학이 같이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조직하자는 의견을 나눔. 학생들을 엄호할 세력과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원주에 가서 김지하, 박재일 선생 등을 만남. 언론계에 있는 선배를 통해 정보와 자금의 도움을 받음. - 원로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백기완 선생에게 부탁하여 장준하 선생 만남. 당시 장준하 선생은 듣기만 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음. - 12월 4일 장준하 선생의 개헌청원100만인서명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12월 24일경 서명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됨. 이 발기인대회로 인해 긴급조치 1호가 발령됨. - 12월 하순경에 김효순을 만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의논하면서 단과 대학 사람들과의 접촉을 부탁, 그리고 백서를 만들어 달라 부탁하였지만 만들지 못함. 그 후 장현준에게 경제문제에 대한 백서 부탁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함. 정운광도 만나 의논함. - 12월 6일 유인태, 이철이 다치카와와 하야카와를 만남. 이 사실을 알고 간첩사건이 일어날 때 주로 일본을 통해서 일어나니 만나는 것을 조심하라고 충고했음. - 12월 말 여정남이 상경하여 유인태와 이철을 만남. 이후 여정남이 구술자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는데 이후 신금호 선배가 서대문 근처 음식점에서 여정남과의 만남을 약속하여 만나게 됨. 그 후 재판정에 다시 봄. - 1월 10일경 유인태 집에서 나병식, 이철, 구술자, 4명이 모여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고 결의함. 	<p>00:52:43</p>	<p>리사업 구술채록_서중석_음성자료 2.mp3</p>
<p>6. 민청학련사건의 전개과정(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1월 7일에 문학예술인들이 성명서 냄. 다음 날 김윤수 선생을 만남. 김윤수 선생은 그 후 민혜숙을 만나고 코리아헤럴드를 방문하라고 함. 이런 과정을 통해 조영래(서울대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를 만남. - 1월 이후 조영래와 정기적으로 자주 만남, 만남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고 실무협의를 하였으며 10만원의 자금을 받음. 	<p>00:00:01 ~ 00:50:06</p>	<p>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 구술채록_서중석_음성자료 3.mp3</p>

<p>이 자금을 유인태와 이철에게 전해 주었으며 모두 50만원~60만원 정도였음. 처음에는 자금의 출처를 몰랐으나 나중에 감옥에서 간수 전병용 씨가 전해 준 김지하의 쪽지를 통해 원주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영래가 3월 15일경 나병식을 두 번 만남. 또한 나병식은 유근일을 찾아가 20만원 받음. 나병식은 윤보선 선생, 박형규 목사, 이우정 교수의 중간 역으로 돈 전달 역할을 함 - 1월 초, 2월 하순에 이현배 선배를 만남. - 나병식을 통해 KSCF 회장인 서경석 만남, 그 후 1~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5번 이상 만남. 만남에서는 서로 정보교환을 함. - 조직을 3·3·3을 중심으로 하는데 모두가 동의함. -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조직에 상당히 큰 문제가 드러남. 제일 기초에 해당되는 서울대 단과대학부더가 잘 안 됨, - 상대의 조직을 위해 김문수를 만났으나 거절함. 대신 김병곤을 소개 받았음. - 고려대는 몇 사람과 접촉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안양로가 3월 하순경에 운동권이 아닌 강박인을 이철에게 소개함. - 연세대는 이상문과 연결되었으나 군대에 가버렸고, 2월 중하순에 송무호, 김영준과 연결됨 - 서울의 3 중에서 고대는 빠지고 3에 속하지 않는 이화여대가 김은혜와 오성숙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 유인태와 전홍표는 강원대학과 지방대학 연결을 위해 지방으로 다님. 강원대학은 당시 잘 조직이 안 되었음. - 1월 초부터 이근성을 정기적으로 만남. 이근성이 인쇄, 유인물 작성 등을 주 임무로 맡음. - 2월 말경에 조직이 대충 모양새를 갖추게 되고 개학과 더불어 새롭게 정리를 하기 위해 3월 7일에 유인태 가에서 모임을 가짐. 		
<p>7. 민청학련사건의 전개과정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3월 7일 모임에서 이철을 총책임자로 확실하게 하고 모두가 뒷받침하기로 합의. 각자 역할 분담을 함.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함. - 김병곤은 서울의 주요 대학을 맡음. - 정문화를 이화여대에서 떼어내 서울대 내의 단과대학을 맡김. - 나병식은 개신교 쪽 연결과 같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2선 후퇴하여 유인태, 구술자와 함께 중심부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함. 역할 분담에서 정문화와 나병식의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림. - 이철이 화염병 얘기를 꺼낼 때 구술자와 유인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함. 함께 했던 사람들도 반대함. 그런데 나중에 의대생 황승주 	<p>00:50:07 ~ 01:20:01</p>	<p>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 구술채록_서중석_음성자료 3.mp3</p>

<p>와 이철이 화염병 실험한 게 재판에서 들통 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지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민청학련 보고서에 나오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함. - 이천재 경위가 보고했다는 민청학련 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음. (1) 73년 11월에 문리대 교수의 제보로 이철이가 정보부 쪽으로부터 망원경까지 동원한 집중 감시 받았다는데 다소 과장된 듯 하나 당국이 학생들의 동태 파악을 하고 있었던 점. (2) 3월 28일 이천재 경위가 시경국장에게 보고한 내용에서 사건의 주요인물 13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명단은 핵심 몇 명만 빼고 모르는데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의심스러움. (3) 3월 27일에 등장한 민청학련이란 이름을 구술자는 당시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보고서에 등장하는 점. (4) 2월 10일 유인태, 전홍표, 정문화, 이강철, 임규영이 강창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권역모임, 사릉모임 등 구술자가 전혀 모르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점. (5) 이철이 쓴 테러리즘을 주제로 한 논문이 이철 집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교수에게 제출한 논문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이 있음. 		
<p>8. 인혁당 재건위와 체포, 구금 및 재판, 석방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3월 28, 29일경에 구술자는 강경에서 잡혀 서울로 압송됨. 3월 30일 혹은 31일에 중앙정보부의 6국으로 인계됨. - 1974년 4월 3일 박정희가 긴급조치 4호 발표 후 특별담화를 내어 구술자 등을 빨갱이로 몰고 초보적인 통일전선을 펼려고 사회 각계로 침투하여 인민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함. 박정희가 뭔가 학생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듦. - 고문은 주로 구타였고 제일 심한 고문은 물고문이었음. 그러나 그 외에도 잠 안 재우기, 독한 회초리로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음. - 인혁당사건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민청학련사건을 소위 공산주의 혁명, 폭력혁명으로 몰고 가기 위해 배후세력이 필요하여 조작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여정남이 체포된 후 이수병, 도예중 순서로 체포되는데 대부분이 피신하지 않고 집에서 잡힌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음. - 여정남 선생은 옥중 단식을 제안한 것은 잘 몰랐음. - 여정남 선생이 재판받을 때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방법이 과연 효과적인 것일까 하고 생각했음. 유신체제 하의 법체계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시인하고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 	<p>01:20:02 ~ 01:50:02</p>	<p>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 구술채록_서중석_음성자료 3.m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2월 17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됨. - 1975년 5월에 사회안전법 통과 후 서울 흑석동 형님 댁에 살았는데 담당 형사가 가끔 찾아와 근황을 알아보고 감. 		
<p>9. 석방 이후 현재까지의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자는 얼마 동안 현대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했음. - 윤무환 선배가 주선하여 국회의원 이기택의 사무실에서 일함. - 1976년 6월경 『진학』이라는 잡지사에 들어가서 일함. - 1977년경에 결혼함. - 1979년 『신동아』에 들어감. 장모의 여동생 쪽의 도움으로 전격적으로 입사를 하게 됨. - 1980년 복학했으나 5·17쿠데타 직후 다시 체포되어 고생함. 이른바 서울역 회관을 가지고 말이 많지만 당시 학생들은 지칠 대로 지쳐 싸울 의지가 없었던 상태였음을 안다면 그런 비판은 무의미함. - 1984년에 사면 복권이 되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음. - 1986년에 원혜영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에 참여 『역사비평』주간을 맡음. - 1987년 대선에서 단일화가 실패한 데는 김대중 씨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봄. 김대중 씨는 ‘4자 필승론’을 내세웠지만 서울에서 표가 3갈래로 나뉘어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가 됨. - 1988년 구술자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자로 활동하였음. - 구술자는 현대사처럼 좋은 민주주의 교재가 없다고 보고 우리 현대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지식 중에서 제일 알찬 게 우리 현대사이고 지금도 교훈을 주는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세상이 달라지고 전자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그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p>01:50:03 ~ 02:18:00</p>	<p>2021_유신 전기 민주화운동 역사정 리사업 구술채록_ 서중석_음성자료 3.mp3</p>